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 연구

- 콘스탄틴 멜르니코프의 작품 특성을 중심으로 -

김 이 슬 · 박 신 미*

국립안동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국립안동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여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1920년대 구성주의 건축의 기하학적 요소는 현대 패션에도 나타나는데 특히 21세기 패션의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은 콘스탄틴 멜르니코프 작품의 조형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2000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조형성을 예술적 조형성이라 정의하고 멜르니코프 작품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추출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패션과 조형성은 어떠한 관계를 통해 발전되었는지 분석하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을 정의한다. 둘째,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들의 작품과 멜르니코프 작품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이 멜르니코프를 예술적 기하학의 선구자로 만들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멜르니코프 작품의 예술적 조형성의 특성을 추출한다. 넷째, 2000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을 고찰한다.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는 2000년 S/S부터 2015년 A/W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의 레디투웨어(ready-to-wear) 컬렉션을 분석하여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을 가진 59개의 컬렉션을 1차로 추출하고, 이 중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을 지닌 395착장을 2차 추출하여 심층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내용 분석이며 본고는 멜르니코프 작품에서 도면과 입면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조형적 특성을 추출하고 구조, 디테일, 실루엣을 기준으로 현대 패션디자인의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을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20세기 패션에서 보인 기하학적 조형성은 일차원적 형태와 패턴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3D 형태의 입체적인 모티브와 평면과 입면을 오가는 기하학적 매스들의 중첩, 배열, 상호 관입을 통해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이 나타났다.

주제어 : 기하학적 조형성, 예술적 조형성, 콘스탄틴 멜르니코프, 여성복 컬렉션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2016학년도 국립안동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박신미, fashion@anu.ac.kr

접수일: 2016년 10월 21일, 수정논문접수일: 2016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14일

I. 서론

1.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 의의

20세기 패션에서 출현한 기하학적 특징은 1920년대 장 파투(Jean Patou)를 시작으로 1960년대 파코 라반(Paco Rabanne),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règes)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주도된다(Lee & Park, 2011). 하지만 20세기의 스타일은 도형의 이차원적 평면 탐구에 국한된 기하학의 일차원적 답습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미래에 대한 동경이 극대화된 뉴밀레니엄의 분위기는 패션에서의 기하학적 특징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게 만들며, 2000년대 초반에는 3D의 입체적인 실루엣이 나타났고 중반 이후에는 2D의 평면적 실루엣이 3D와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20세기 패션의 단순한 기하학의 배열은 21세기에 이르러 예술적 차원의 기하학 표현으로 융합된다.

1920년대에 출현한 러시아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기능주의(functionalism)와 절대주의(suprematism)의 이중적 속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구성주의 건축가인 콘스탄틴 멜르니코프(Konstantin Mel'nikov)는 이 두 성향 중 어느 한 곳도 속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건축적 성향을 구축한다. 구성주의 건축의 기하학적 요소는 현대 패션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21세기 패션의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은 멜르니코프 작품의 조형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명한 윤곽의 기하학적 형태, 개인적이면서도 예술성을 유지한 멜르니코프의 작품들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과 여러 요소들이 부합한다. 그러므로 200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멜르니코프의 작업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현대 패션과 건축에 나타난 디자인 조형성과 형태성에 관한 연구는 기하학의 일차원적 조형성(Kim, 2012)과 구성주의의 표현양

상 중 하나인 기하학적 요소(Kim, 2011), 패션디자인 개발(Park & Joo, 2014; Yang & Roh, 2016), 그리고 3D 형태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Lee & Kim, 2015)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건축가 멜르니코프에 관한 연구는 국외에서 미국 출신 미학자 프레드릭 스타(S. Frederick Starr)가 1978년 생애사를 연구한 것을 시작으로 셀림 칸 마고메도프(Selim O, Kahn-Magomedov), 캐서린 쿡(Catherine Cooke)과 같은 이론가들에 의해 작품의 특성이 재고찰된다(Cooke, 1990; Kahn-Magomedov, 1987; Starr, 1978). 국내에서는 Lee(2003)가 건축물이 내재한 인식과 역동적 형태의 관점에서 작품의 특성을 분석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대상이 아니었던 예술적 조형성의 관점에서 현대 패션디자인의 특징을 추출하려 한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여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패션과 조형성은 어떠한 관계를 통해 발전되었는지 분석하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을 정의한다.

둘째,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들의 작품과 멜르니코프 작품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이 멜르니코프를 예술적 기하학의 선구자로 만들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멜르니코프 작품의 예술적 조형성의 특성을 추출한다.

넷째, 2000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을 고찰한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내용 분석이다.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 해결하기 위해 본고

는 벨르니코프의 작품 25개를 도면과 입면의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이를 근거로 2D와 3D의 구조, 디테일, 실루엣의 기준을 정립하여 현대 패션 디자인의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본고는 2000년 S/S부터 2015년 A/W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의 레디투웨어(ready-to-wear) 컬렉션을 분석하여 예술적 기하학의 특성을 가진 65개의 컬렉션을 1차로 선별하고, 이 가운데 예술적 기하학의 특성을 지닌 395착장을 2차 추출하여 심층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II. 예술적 조형성의 개념

본 장에서는 패션과 조형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20세기 이후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변화를 고찰하여 예술적 조형성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1. 패션과 조형성

패션은 인간의 몸과 가장 밀접한 공간에서 조형미를 형상화하는 시각 조형 예술이다. 패션의 조형성은 인간의 생활 방식과 개인의 표현 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시대의 사회·문화적 흐름에 따라 생활 방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이는 당대의 예술성을 바꾸어 놓는 중요한 요소이다. 패션의 조형성 또한 사회·문화 양식의 변화가 만들어낸 시대적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20세기 초 모더니즘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이전 시대와는 명확히 차별화 된 현대적 조형성이 도출된다.

새로운 디자인 창조의 미적 기준인 조형성은 사회·문화적 환경과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변화한다. 세계미술용어사전은 조형성을 “삼차원을 나타내는 성질, 혹은 어느 회화에서 인물이 충분히 입

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로 정의한다(plasticity, n.d.). 또한 Joe and Lee(2004)는 “모든 조형에는 디자인이 나타나며, 형(型)이 있으면 반드시 디자인이 있다”고 설명하며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조형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p. 74).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에 영향을 주었고 기술 혁명을 위한 기계 찬양은 기능주의라는 새로운 예술관을 창조했다. 기능주의는 20세기 초 조형 예술을 통해 실현되었는데 과거의 장식적 형태에서 벗어나 기능을 위한 조형성을 추구하며 발전했다. 기능주의 조형성을 실현한 대표적 건축가는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와 테오 반 두스부르흐(Theo van Doesburg)이며 특히 르 코르뷔지에는 건축이 기계 문명의 예술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확신한다(Yim, 2008). <Figure 1>은 기능주의 디자인을 대표하는 바우하우스(Bauhaus)의 문장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창립 당시 공예적 가치 중심의 심볼이 두스부르흐의 영향으로 기능주의 성향의 심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Jin, 2011).

시점의 차이는 있으나 패션 또한 기능주의 성향을 수용하여 이전 시대와는 다른 현대적 형태가 나타난다. 기능주의의 영향으로 패션은 이상적 몸을 위한 도구에서 인체의 존중을 위한 기능적 디자인으로 변모해 기하학의 단순한 실루엣을 도출한다. 기하학의 출현을 이루어낸 1920년대는 현대 패션의 시작점이다. 당대의 패션을 주도했던 디자이너인 파투,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 마들렌 비오네(Madeleine Vionnet) 등은 자유로운 몸을 위한 기능적 패션을 선보이며 기하학의 실루엣을 구체화 시킨다. 동시에 당대의 새로운 트렌드였던 ‘가르손느(garçonne) 룩’, ‘배출러 걸(bachelor girl) 룩’, 그리고 ‘플래퍼(flapper) 룩’ 역시 기능주의의 영향으로 도출된 것이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능주의 패션은 쿠레주, 라반, 피에르



Figure 1. 바우하우스의 공식적인 문장, 왼쪽은 원래 문장, 오른쪽은 교체된 문장.
From Jin, (2011). p. 324.



Figure 2. 쿠레주, 1965, 『VOGUE』 패션지 커버.
From Guillaume. (1998/1998). p. 35.



Figure 3. 카와쿠보, 1989.
From Charlotte. (2000). p. 509.

가르탱(Pierre Cardin)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해석 된다(Lee & Park, 2011). 1965년 프랑스 『VOGUE』에 쿠레주의 1965년 컬렉션이 표지 컬렉션으로 선정 되었는데 쿠레주는 단순한 형태와 제한된 컬러를 통한 미래적 디자인의 롤 모델을 제시하며 기능적 패션디자인의 리더가 된다(Figure 2). 1970년대 이후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를 시작으로 1980년대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등의 신예 디자이너들은 20세기 패션의 조형성에 변화를 준다. 이들은 기능에만 국한되었던 단순한 실루엣의 기하학적 조형성을 형태의 개념적 접근으로 융합하며 이전의 현대적 표현에서 진보된 예술적 조형성의 디자인을 제시한다(Figure 3).

2. 예술적 조형성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예술적 조형성을 ‘일차원의 기하학 형태를 넘어 실질적인 매스들의 조합과 중첩으로 의외적 실루엣을 도출하는 감각적 형태로 구축한 창의적이고 주관적인 조형성’으로 정의한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은 형태의 개념적 접근에 근거한다. 이는 회화의 현대화를 이루어낸 입체파(cubism)와 이를 실현시킨 구성주의 조형성의 특징인데 이것은 20세기 후반에 출현한 개념주의 패션의 새로운 조형성 중 하나이다.

예술적 조형성의 근간은 입체파와 구성주의이

다. 입체파는 대상의 해체가 만들어낸 분석적 형태의 요소들이 새로운 조형적 질서로 재결합된 것이다. 또한 입체파에서 공간의 구성은 구성주의의 운동에 원천이기도 하다(Collins, 1998/2001). 반면 구성주의 건축은 평면의 면적인 요소의 구축이 아닌 공간 속에서 입방체의 자유로운 분절과 결합을 통해 의외적 삼차원의 구조물을 만들어낸다. 특히 구성주의 작가 중 멜르니코프는 개인적이고 실험적인 개념 건축을 현존시켰는데, 이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인 개념주의 패션의 속성과 부합한다.

III. 멜르니코프 작품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

멜르니코프는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가로 20세기 건축에서 예술적 조형성을 구축해낸 인물이다. 멜르니코프의 건축 사상과 작품 특성은 21세기 이후 패션과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그의 예술성은 당대의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이 추구한 ‘기능주의’와 ‘절대주의’가 절충된 ‘통합주의’를 통해 구축된다. 본 장에서는 멜르니코프가 여타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가들과 달리 예술적 조형성을 실현해 낼 수 있었던 근거를 밝혀내고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추출하려 한다.

1. 러시아 구성주의와 멜르니코프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유럽 각국에서는 새로운 조형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조형 운동들의 공통적 특성은 과거의 경향을 부정하고 순수 조형을 지향한다는 점인데 이는 기계 문명의 발전과 승리를 확인하고자 한 ‘기계예찬’의 경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1917년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에 의해 주도된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인 러시아 10월 혁명은 당대 러시아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혁명 후 사회·문화적으로 과거의 관습적인 미적 성향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더불어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 전위예술 운동이 전개된다. 구성주의는 이 진보적 전위예술운동 중에 탄생한 건축 중심의 예술 운동이다.

블라디미르 타틀린(Vladimir Evgrafovich Tatlin)과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Severinovich Malevich)는 구성주의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건축가이다. 프랑스 유학시절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y Picasso)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타틀린은 러시아로 돌아와 『Conter-Relief』를 제작하며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 구성주의적 추상 조형 예술을 구축하고 말레비치 역시 『Black Square』를 통해 순수 추상 예술을 표현한다(Figure 4). 이 둘은 구성주의 개념 안에서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는데 타틀린은 기능주의 성향을 보이고 말레비치는 절대주의 성향을 보인다(Dempsey, 2002). 타틀린의 기능주의는 물질적 측면이 극대화된 기술과 생산에 초점을 맞춘 생산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말레비치의 절대주의는 정신적 측면이 중요시된 개인의 직관과 예술을 동일시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시기 건축가들의 이념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디자인에 대한 견해 규정과 사회에서 건축가의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채를 띤 단체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Lee, 2003, p. 27). 그 중 절대주의의 경향을 보인 신건축가협회(ASNOVA:

The Association of New Architects)와 기능주의의 현대건축가동맹(OSA: The Union of Contemporary Architects)은 대표적인 대립적 의미를 띤 단체로 구성주의를 주도한다(Dempsey, 2002).

나움 가보(Naum Gabo)는 타틀린과 말레비치와 더불어 구성주의 예술에서 선구적 역할을 한다. <Figure 5>와 같이 “그는 『Head of a Woman』을 통해 면으로 공간을 분할하여 깊이를 부피로 바꾸어 놓는다”(Jin, 2011, p. 268). 이를 통해 가보는 입체파와 미래파(futurism) 조각의 특징을 함께 보여주며 입체파와 미래파의 성향이 조우된 구성주의적 조형 예술을 구축한다. 이후 그는 1920년 『Realistic Manifesto』를 통해 입체-미래주의(cubo-futurism)와 구성주의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선언은 최초의 구성주의 선언이며, 여기서 가보는 공간과 시간을 의미하는 ‘삶의 진정한 법칙’을 주장한다. 또한 타틀린처럼 기능주의적 예술에 동의할 수 없고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를 따라 구축의 행위가 온전히 인간의 내면을 통해 초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Dempsey, 2002; Gray & Burleigh-Motley, 1986; Yoon, 1995). 따라서 이 선언은 앞서 제시한 구성주의 대립 성향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구성주의는 당대의 러시아가 추구한 사회주의 사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이들은 삶과 예술을 하나의 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상의 근거는 당시 러시아의 경제적 배경에 있다. 혁명 초 아방가르드들에게 주어졌던 국가적 지원이 경제난으로 인해 제한되자, 예술가들은 예술만 추구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생산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구성주의 예술가들은 직접 생산과 건축에 참여하여 사회의 물질적 수준을 높여주며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지향한다. 구성주의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작품은 타틀린의 『Monument to the Third International』이다(Figure 6). 이 기념비는 시대의 가장 진보적인 기능적 표현을 상징하고 러시아 구성



Figure 4. 말레비치, 『Black Square』, 1913.
From Gray and Burleigh-Motley. (1986).
p.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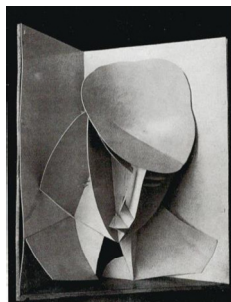


Figure 5. 가보, 『Head of a Woman』,
1916-1917.
From Gray and Burleigh-Motley. (1986).
p. 238.



Figure 6. 타틀린, 『Monument to the
Third International』, 1919.
From Dempsey. (2002). p. 107.

주의의 고유한 양식에 도달한다(Gray & Burleigh-Motley, 1986).

멜르니코프는 앞서 분석된 대표적 대립 단체의 어느 한 곳에도 속하지 않으며 기능주의와 절대주의의 개념이 조우된 통합주의의 성향을 구축해낸다. 멜르니코프는 주택 단지를 필두로 노동자 클럽(workers' club), 공장, 창고 등의 기능적 공공장소를 기획한다. 당시 다른 러시아 구성주의자들 역시 세계적 추세를 읽어내며 산업화 환경에 적합한 진보적 공간의 제안을 시도하지만 농업 중심 사회이던 러시아의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획을 포기한다. 하지만 멜르니코프는 뛰어난 현실 감각을 살려 다수의 기능주의 특성이 담긴 공간을 창조한다. 또한 멜르니코프 작품에서 나타난 절대주의의 특성은 니콜라이 라도프스키(Nikolai Alexandrovich Ladovsky)의 영향을 받았다. 멜르니코프는 순수 조형 실험과 선전 미술이 결합되어 나타난 건축적 역동성이 극대화된 형태성을 구축하며 절대주의의 성향을 표출한다(Yim, 2008).

멜르니코프의 건축적 성향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대량생산이 불가능하였으며 표현주의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시 편집 방향이 기능주의적이었던 대표적인 소비에트 건축 잡지 『Soviet Architecture』에서 언급되지 않았다”(Yoon, 1995, p. 143). 그러나 그는 파리 박람회를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자신의 진보적인 신념을 사회와 타협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다. 멜르니코프 작품에 나타난 공간 구축과 건축적 매스의 역동적 실루엣은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서 표출되는 조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2. 멜르니코프와 예술적 조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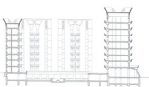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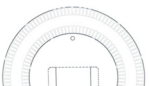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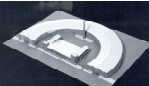
멜르니코프는 자신만의 직관과 감성을 중시한 예술적 표현과 다기능의 해결책을 통해 역동적 형태를 현실적으로 구축해 내며 통합주의의 형태성을 구현한 건축가이다. 본고의 분석 결과 멜르니코프의 작품에서 6개의 예술적 조형성의 특성이 추출되었다(Table 1), (Figure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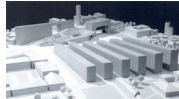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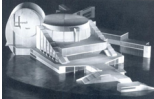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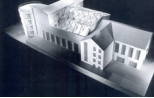

첫째, 예술적 조형성의 특성은 ‘원, 삼각형, 사각형의 기본형에 충실한 기하학의 외적 실루엣’이다. 멜르니코프는 작품의 도면상에서 같은 크기의 선과 도형을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기하학적 형태가 극대화된 외적 실루엣을 구축한다. 그는 건물 자체를 오브제 요소로 사용하였는데 <Figure 7>, <Figure 8>과 같이 실루엣을 형성하는 기하학적 구성 요소와 동일한 형태를 도출하거나 <Figure 9>, <Figure 10>과 같이 구성 요소와 전혀 다른 기하학적 형태를 형성한다. 둘째, ‘기하학 매스들의 규칙적 반복에 의해 형성된 리듬’이다. 멜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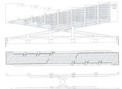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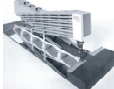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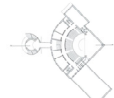

코프는 서로 다른 형태의 도형 혹은 크기와 형태가 동일한 도형의 규칙적인 배열을 통해 외적 형태의 시각적 유희와 연속성을 부여한다(Figure 11), (Figure 12), (Figure 13), (Figure 14). 또한 건물의 표면적 기하학의 반복과 건물 매스의 반복을 통해 평면과 입체의 리듬을 함께 탐구하며 오브제 요소로는 창문과 건물이 사용된다. 셋째, ‘서로 다른 이질적 매스들의 상호 관입으로 인한 형태의 다시점적 관점’이다. 벨르니코프는 건물 자체를 오브제 요소로 사용한다. <Figure 15>, <Figure 16>, <Figure 17>, <Figure 18>과 같이 그는 도면과 입면 상에서 기하학 모듈의 매스들 간 교차하고 관입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구성을 실험하며 다시점적 형태를 탐구한다. 넷째, ‘내부 공간의 변화가 만들어낸 가변적 기능성’이다. 벨르니코프는 의자와 파티션을 오브제로 사용하고 이를 내적 기하학 요소로 만든다. 그는 오브제들의 이동에 의한 내적 공간 변화로 기능성과 역동성을 함께 표현하는데 특히 그의 작품 중 기능주의적 성향을 대표하는 건축 사례인 노동자 클럽 건축물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Figure 19), (Figure 20), (Figure 21), (Figure 22). 다섯째, ‘사선과 나선의 형태로 나타난 상승적 이미

지’이다. 벨르니코프는 매스를 사선으로 두거나 나선의 형태로 중첩하는 방법, 혹은 건물 사이로 계단을 사선과 나선형으로 교차하고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도면과 입면 상으로 역동적인 실루엣을 구축한다. <Figure 23>, <Figure 24>, <Figure 25>, <Figure 26>은 대표적인 상승적 이미지의 도면과 입면이며 사용된 오브제 요소는 건물과 계단이다. 마지막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은 ‘외적 요소의 내부 순환이 만들어낸 환경적 결정론’이다. 여기에서 외적 요소란 햇빛, 바람과 같은 자연 환경적 요소를 말한다. 벨르니코프는 창문과 기둥을 오브제 요소로 사용하고 그는 이를 통해 외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내부로 순환하도록 만든다. 그는 “태양이 어떻게 내부 공간에 들어오는지, 창문이 어떻게 경치나 외부 세계의 이미지를 프레임 속에 담는지 혹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어떻게 건축 형태에 영향을 주는지 등을 탐구하여 이러한 특성을 디자인 요소로 표현한다”(Yoon, 1995, p. 143). <Figure 27>, <Figure 28>, <Figure 29>, <Figure 30>은 벨르니코프 건축물의 도면과 입면의 형태이다. 이렇듯 환경적 결정론은 벨르니코프 작품의 중요한 미적 가치 중 하나이다.

Table 1. 벨르니코프의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

특성	작품(년도)	도면	입면	공통점
기하학적 형태성	『Project for the Workers Dwellings in Izestija CIK and VCIK』 (1934)	 <p>Figure 7. 도면 1.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302.</p>	 <p>Figure 8. 입면 1.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300.</p>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기본형에 충실한 기하학의 외적 실루엣
	『Indoor Park for Goods Vehicles on Movo-Rjazanskaja street』 (1927-1929)	 <p>Figure 9. 도면 2.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161.</p>	 <p>Figure 10. 입면 2.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160.</p>	
		같은 도형의 연속적 배열이 만들어낸 외적 실루엣의 확장		
		사각형이 만들어낸 반원형의 외적 실루엣		

특성	작품(년도)	도면	입면	공통점
리듬	『The Novo-Sukharevskij Market』 (1924)	 Figure 11. 도면 3.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128.	 Figure 12. 입면 3.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129.	기하학 매스들의 규칙적 반복에 의한 리듬 형성
		서로 다른 기하학 건물의 규칙적 배열		
	『Project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Arbat Square』 (1931)	 Figure 13. 도면 4.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255.	 Figure 14. 입면 4.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257.	
동일한 크기의 도형의 규칙적 반복				
다시점	『Pravda Workers' Club』 (1927-1929)	 Figure 15. 도면 5.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192.	 Figure 16. 입면 5.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191.	이질적 매스들의 상호 관입으로 인한 외적 형태의 다시점적 관점
		서로 다른 도형의 대칭적 관입		
	『Competition Project for the MOSPS Theatre』 (1931)	 Figure 17. 도면 6.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261.	 Figure 18. 입면 6.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259.	
서로 다른 도형의 불규칙적 관입				
가변적 가능성	『Burevestnil Workers' Club』 (1927-1930)	 Figure 19. 도면 7.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208.	 Figure 20. 입면 7.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207.	내적 기하학 요소의 이동에 의한 공간 변화
		파티션의 이동이 만들어낸 공간 변화		
	『Gor'kij Workers' Club』 (1927-1929)	 Figure 21. 도면 8.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201.	 Figure 22. 입면 8.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199.	
의자와 파티션의 이동이 만들어낸 가능성				

특성	작품(년도)	도면	입면	공통점
역동성	『Lanigradskaja Pravda』 (1924)	 Figure 23. 도면 9.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136.	 Figure 24. 입면 9.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134.	사선과 나선의 이미지에 의한 역동적인 외부 실루엣
	메스의 중첩이 만들어낸 나선형의 역동성			
역동성	『Indoor Car Park Paris』 (1925)	 Figure 25. 도면 10.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149.	 Figure 26. 입면 10.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150.	
	도형의 상승적 배치로 만들어낸 역동성			
자연의 순환성	『Inturist Car-Park』 (1934-1936)	 Figure 27. 도면 11.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287.	 Figure 28. 입면 11.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284.	기하학을 통한 자연의 내부 순환
	창문과 기둥의 기하학 형태를 통한 자연의 순환			
자연의 순환성	『The Rusakov Workers' Club』 (1927-1929)	 Figure 29. 도면 12.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186.	 Figure 30. 입면 12.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185.	
	창문의 도형적 형태를 통한 자연의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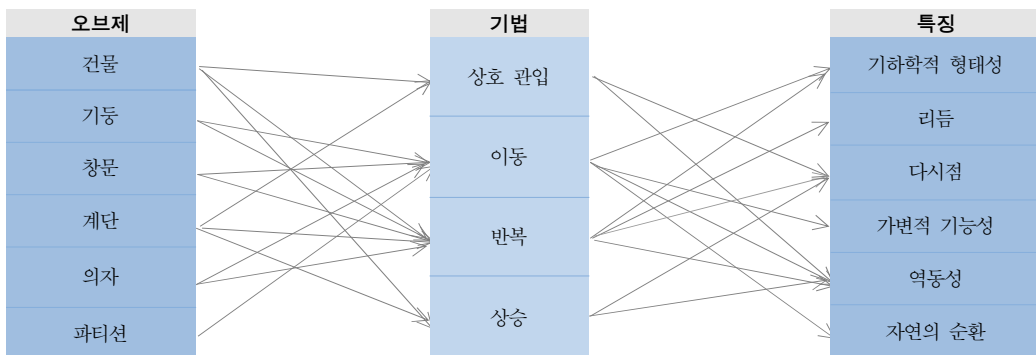


Figure 31. 멜르니코프 작품의 예술적 조형성 특징 도출 과정.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 특징 고찰

본 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멜르니코프의 예술적 조형성 특성인 ‘기하학적 형태성’, ‘리듬’, ‘다시점’, ‘가변적 기능성’, ‘역동성’, ‘자연의 순환성’을 중심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을 고찰한다(Table 2).

1. 기하학적 형태미: 외적 형태의 확장

첫 번째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은 외적 형태의 확장이 가져온 ‘기하학적 형태미’이다. 20세기의 기능성이 만들어낸 단순한 실루엣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장된 기하학의 형태로 표현된다. <Figure 32>는 멜르니코프 작품 중 도형의 기본 형태에 충실한 외적 형태성을 보여준다. 현대 패션에서도 선명한 윤곽의 입체 도형이 외적 형태로 구축되어 2D와 3D의 경계가 모호한 실루엣이 도출된다. <Figure 33>은 부디카(Boudicca)의 2006년 A/W 컬렉션으로 하의의 스커트를 마름모의 도형으로 표현하고 화이트의 통일된 컬러 안에서 블랙 컬러의 벨트로 상의와 하의를 구분지어 상반된 기하학의 실루엣을 부각시킨다. <Figure 34>, <Figure 35>, <Figure 36>은 서로 다른 원단을 사용하여 실루엣을 원의 도형으로 표현한 사례이다. 2009년 S/S 컬렉션에서 지안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é)는 실크를 사용해 기하학적 형태성을 구축하여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와 조우된 조형성을 표출한다. 반면 2013년 A/W 컬렉션에서 팸 호그(Pam Hogg)는 시스루 소재를 사용하여 도형 속에 인체의 형태가 투과되게 연출한다. 2015년 A/W 컬렉션에서 안리얼에이지(Anrealage)는 블랙 컬러의 니트를 이용하여 선명한 윤곽의 원을 구축한다. 디자인은 중앙에 화이트 컬러로 정확하게 대상에 빛을 비추는 인상을 주는데 이는 ‘Light’라는 컬렉

션 주제의 표현입과 동시에 원의 형태성을 강조한 것이다.

2. 리듬의 유희성: 기하학과 매스의 놀이

둘째는 ‘리듬의 유희성’이다. 멜르니코프 작품 중 <Figure 37>은 매스들의 연속적 배열이 만들어낸 리듬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현대 패션 또한 규정된 선, 도형과 매스, 혹은 서로 다른 크기와 형태의 도형과 매스의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 새로운 조형적 형태를 구축한다. 연속적인 기하학과 매스의 놀이는 시각적 리듬과 유희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Figure 38>은 폼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2009년 S/S 컬렉션으로 그레이 컬러와 블랙 컬러의 육각형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컬러의 차이와 도형의 반복이 주는 시각적 유희를 표현한다. 또한 상의와 하의의 도형 크기를 다르게 배치하여 부피감의 차이를 부여한다. <Figure 39>는 가레스 퓨(Gareth Pugh)의 2009년 S/S 컬렉션으로 실험적 소재가 만들어진 견고한 형태의 사각형을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가로의 조형미, 연속성을 통한 시각적 리듬, 부피감의 차이라는 특징을 구축해낸다. 또한 소매에 도형의 반복이 만들어진 삼각형의 입체적 형태가 형성되어 강인한 이미지를 표출한다. 에밀리오 드 라 모레나(Emilio De La Morena)의 2009년 A/W 컬렉션인 <Figure 40>과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의 2015년 S/S 컬렉션인 <Figure 41>은 앞서 분석된 퓨와 공통된 특징이 도출된다. 에밀리오 드 라 모레나는 같은 도형의 연속적인 반복을 통해 가로의 조형미를 표현하며 유선형의 형태미를 구축한다. 와타나베는 화이트 컬러 원의 형태 위에 블랙과 화이트 컬러가 혼합된 기하학의 반복과 조합으로 새로운 도형의 형태와 시각적 유희가 표출되며 퓨와 같이 실험적 소재의 사용으로 견고하고 선명한 윤곽의 형태를 표현한다.

3. 의외적 실루엣의 다시점적 관점: 중첩과 상호 관입

셋째는 도형의 중첩과 상호 관입이 만들어낸 ‘의외적 실루엣의 다시점적 관점’이다. 벨르니코프의 작품 <Figure 42>는 매스의 상호 관입을 통해 다시점적 관점을 구축한다. 현대 패션에서도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형태의 매스들이 관입하거나 기하학과 도형의 중첩으로 예상치 못한 의외적 실루엣을 구축한 디자인들이 다수 보인다. 중첩과 상호 관입이 만들어낸 입체적 형태는 시각적 위치에 따라 또 다른 실루엣을 구축하는 다시점적 관점의 디자인을 도출한다. 자일스 디킨(Griles Deacon)의 2008년 A/W 컬렉션 <Figure 43>과 아이바나 필자(Ivana Pilja)의 2014년 S/S 컬렉션 <Figure 46>은 매스의 상호 관입을 통해 다시점적 형태를 표현한 사례이다. 디킨의 자켓은 삼각형과 사각형이라는 서로 다른 독립적 모듈의 매스들이 불규칙적인 침투의 반복을 통해 형태를 구축한다. 반면 아이바나 필자는 원피스의 스커트에서 동일한 매스를 규칙적으로 관입하여 새로운 볼륨의 형태를 구축해낸다. <Figure 44>의 매니쉬 오로라(Manish Arora)의 2009년 S/S 컬렉션과 <Figure 45>의 폼테가르송의 2012년 S/S 컬렉션에서는 기하학의 중첩에 의해 구축된 의외적 실루엣이 특징적이다. 매니쉬 오로라는 길이가 긴 사각형을 파도형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중첩하여 표면적 역동성을 표현하고, 폼테가르송은 기하학의 모듈을 연속적으로 중첩을 통해 거대한 부피의 형태적 역동성을 나타낸다.

4. 가변적 기능성: 기하학적 모듈의 움직임

넷째는 ‘가변적 기능성’이다. 벨르니코프의 노동자 클럽 작품인 <Figure 47>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성은 가변적 기능성이다. 가변적 기능성은 현대 패션에서 본래의 형태에서 해체된 기하학적

모듈의 이동으로 이전의 형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과 실루엣을 만들고 이 유동성을 지닌 모듈은 기능성, 내적과 외적 역동성의 특징을 도출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후세인 살라얀(Hussain Chalayan)의 2000년 S/S 컬렉션과 2007년 A/W 컬렉션은 기술과 패션을 접목시켜 전자동으로 기하학적 모듈이 움직이는 가변적 기능성을 보여준다. <Figure 48>은 『Remote Control Dress』로 살라얀이 시도한 기술을 통한 공간의 해체이며, 버튼 하나로 원피스의 해체된 모듈이 움직이며 새로운 공간을 구축한다. <Figure 50> 또한 원피스의 패턴을 모두 기하학의 모듈로 해체하여 변형된 기능적 형태성을 표현한다. <Figure 49>는 아마모토의 2004년 S/S 컬렉션으로 사각형의 모듈로 연결된 원피스는 모듈의 탈부착으로 변형되어 해체적 형태를 보여준다. <Figure 51>은 시몽 포르테 자크뮈스(Simon Porte Jacquemus)의 2015년 A/W 컬렉션으로 앞서 제시된 아마모토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모듈이 원을 통과하거나 혹은 사각형의 모듈을 서로 결합하는 등 기하학의 이동과 변형을 통해 기능성과 내적 그리고 외적 역동성을 표현한다.

5. 상승적 이미지: 입체적 형태의 시선 이동이 만들어낸 역동성

다섯째는 ‘상승적 이미지’이다. 벨르니코프 작품 중 <Figure 52>의 역동적인 사선과 나선의 실루엣은 현대 패션에서도 그 특성이 나타난다. 선의 직교가 만들어낸 외적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선과 나선형의 입체적 도형은 역동적 외적 형태의 시선 이동을 구축해낸다. 이는 형태의 상승적 이미지를 도출하며 시각적 역동성을 구축한다. 와타나베의 2004년 A/W 컬렉션인 <Figure 53>은 패딩 소재의 특성으로 인체를 나선형으로 감싸는 형태를 표현하며 시각적 역동성을 도출한 사례이다. <Figure

54>는 빅터 앤 롤프(Victor & Rolf)의 2009년 S/S 컬렉션으로 면의 반복이 구축해낸 큰 나선형의 조형이 사선의 상승적 이미지와 시선의 이동을 함께 내재하며 과장된 형태를 도출해낸다. 야마모토의 사례인 <Figure 55>는 2011년 A/W 컬렉션으로 나선형으로 변형된 크리놀린을 역동적 형태로 표현한다. <Figure 56>은 폼테가르송의 2014년 S/S 컬렉션의 사례로 몸을 둘러싼 사선의 구조물이 상승적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외적 형태의 시각적 역동성을 도출한다.

6.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의 일체화: 환경적 요소의 순환

마지막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은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의 일체화’이다. <Figure 57>은 멜르니코프 작품의 조형적 특성 중 자연의 순환성을 표현한다. 현대 패션에서도 기하학을 통해 환경 요소가 순환하며 내적 공간의 우연적 유희성이 나타나

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기하학의 순환 매개체로 인해 외적 공간과 내적 공간의 일체화를 표현하고 있으며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의 리듬, 역동성, 유희성, 우연성의 특징이 디자인에 나타나고 있다. 폼테가르송의 2008년 S/S 컬렉션인 <Figure 58>은 기하학의 간접적 순환 매개체와 직접적 순환 매개체가 함께 공존하며 내적 형태의 우연성과 외적 형태의 리듬, 유희성이 표현된다. 또한 <Figure 59>는 아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의 2015년 S/S 컬렉션으로 3D 프린터가 만들어낸 신소재의 사용으로 정교한 기하학의 반복을 구축하며,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이 일체화되어 조형적 형태를 강조한다. <Figure 60>은 와타나베의 2015년 A/W 컬렉션으로 기하학적 형태를 구축하여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 기하학의 모듈을 통해 내적 형태의 우연성과 외적 형태의 역동성이 동시에 형성된다. 로데브예(Rodebjer)의 2015년 A/W 컬렉션인 <Figure 61>은 서로 다른 형태의 도형이 만나 새로운 기하학의 매개체를 구축하고 가죽을 사용하여

Table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 및 대표 디자이너 분석.

조형성 분류	특징					디자이너(브랜드)
기하학적 형태미: 외적 형태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된 기하학적 형태성 ▷ 도형의 형태에 충실한 외적 실루엣 					브라이언 커크비 & 조위 브로치 (부디카), 토마스 아퀼라노 & 로베르토 리몬디 (지안프랑코 페레), 팸 호그 (팸 호그), 쿠니히코 모리나자 (안리얼에이지)
	멜르니코프 작품 사례  <p>Figure 32. 『Competition Project for the Commissariat of Heavy Industry』.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292.</p>	여성복 컬렉션 사례    				
	Figure 33. 부디카 2006 A/W. From AUTUMN/WINTER 2006. READY-TO-WEAR Boudicca. (2006). http://www.vogue.co.uk	Figure 34. 지안프랑코 페레 2009 S/S. From SPRING/SUMMER 2009. READY-TO-WEAR Gianfrance Ferre. (2008). http://www.vogue.co.uk	Figure 35. 팸 호그 2013 A/W. From AUTUMN/WINTER 2013. READY-TO-WEAR Pam Hogg. (2013). http://www.vogue.co.uk	Figure 36. 안리얼에이지 2015 A/W. From AUTUMN/WINTER 2015. READY-TO-WEAR Anrealage. (2015). http://www.vogue.co.uk		

조형성 분류	특징	디자이너(브랜드)	
리듬의 유희성: 기하학과 매스의 놀이	▷ 규정된 기하학의 반복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 ▷ 다른 도형의 반복이 만들어낸 시각적 유희성	레이 카와쿠보 (폼데가르송), 가레스 퓨 (가레스 퓨), 에밀리오 드 라 모레나 (에밀리오 드 라 모레나), 준야 와타나베 (준야 와타나베)	
	멜르니코프 작품 사례		여성복 컬렉션 사례
	 <p>Figure 37. 『The Bus Garage on Bakhmet'ev Street』.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155.</p>		 <p>Figure 38. 폼데가르송 2009 S/S. From SPRING/SUMMER 2009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2008). http://www.vogue.co.uk</p>  <p>Figure 39. 가레스 퓨 2009 S/S. From SPRING/SUMMER 2009 READY-TO-WEAR Gareth Pugh. (2008). http://www.vogue.co.uk</p>  <p>Figure 40. 에밀리오 드 라 모레나 2009 A/W. From AUTUMN/WINTER 2009 READY-TO-WEAR Emilio De La Morena. (2009). http://www.vogue.co.uk</p>  <p>Figure 41. 준야 와타나베 2015 S/S. From SPRING/SUMMER 2015 READY-TO-WEAR Junya Watanabe. (2014). http://www.vogue.co.uk</p>
의외적 실루엣의 다시점적 관점: 중첩과 상호관입	▷ 서로 다른 도형의 관입이 만들어낸 다시점적 관점 ▷ 기하학의 중첩이 만들어낸 의외적 실루엣	자일스 디콘 (자일스), 매니쉬 오로라 (매니쉬 오로라), 레이 카와쿠보 (폼데가르송), 아이바나 필자 (아이바나 필자)	
	멜르니코프 작품 사례		여성복 컬렉션 사례
	 <p>Figure 42. 『Project for the Svoboda Workers' Club』.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196.</p>		 <p>Figure 43. 자일스 2008 A/W. From AUTUMN/WINTER 2008 READY-TO-WEAR Giles. (2008). http://www.vogue.co.uk</p>  <p>Figure 44. 매니쉬 오로라 2009 S/S. From SPRING/SUMMER 2009 READY-TO-WEAR Manish Arora. (2008). http://www.vogue.co.uk</p>  <p>Figure 45. 폼데가르송 2012 S/S. From SPRING/SUMMER 2012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2011). http://www.vogue.co.uk</p>  <p>Figure 46. 아이바나 필자 2014 S/S. From SPRING/SUMMER 2014 READY-TO-WEAR Ivana Pilja. (2013). http://www.vogue.co.uk</p>

조형성 분류	특징					디자이너(브랜드)
가변적 기능성: 기하학적 모듈의 움직임	▷ 기하학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해체적 형태 ▷ 도형의 가변적 기능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					
	멜르니코프 작품 사례  Figure 47. 『Frunze Workers' Club』.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203.	여성복 컬렉션 사례				
상승적 이미지: 입체적 형태의 시선 이동이 만들어낸 역동성	▷ 사선의 상승적 이미지가 도출한 역동적 형태 ▷ 나선형의 시선 이동이 만들어낸 시각적 역동성					
	멜르니코프 작품 사례  Figure 52. 『Competition Project for the Monument to Columbus at Santo Domingo』.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253.	여성복 컬렉션 사례				
	 Figure 48. 후세인 살라얀 2000 S/S. From Quinn. (2004). p. 130.	 Figure 49. 요지 야마모토 2004 S/S. From SPRING/SUMMER 2004 READY-TO-WEAR Yohji Yamamoto. (2003). http://www.vogue.co.uk	 Figure 50. 후세인 살라얀 2007 S/S. From SPRING/SUMMER 2007 READY-TO-WEAR Hussein Chalayan. (2006). http://www.vogue.co.uk	 Figure 51. 자크뤼스 2015 A/W. From AUTUMN/WINTER 2015 READY-TO-WEAR Jacquemus. (2015). http://www.vogue.co.uk		
	 Figure 53. 준야 와타나베 2004 A/W. From AUTUMN/WINTER 2004 READY-TO-WEAR Junya Watanabe. (2004). http://www.vogue.co.uk	 Figure 54. 빅터 & 롤프 2009 S/S. From SPRING/SUMMER 2009 READY-TO-WEAR Viktor & Rolf. (2008). http://www.vogue.co.uk	 Figure 55. 요지 야마모토 2011 A/W. From AUTUMN/WINTER 2011 READY-TO-WEAR Yohji Yamamoto. (2011). http://www.vogue.co.uk	 Figure 56. 폼데가르송 2014 S/S. From SPRING/SUMMER 2014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2013). http://www.vogue.co.uk	준야 와타나베 (준야 와타나베), 빅터 호스팅 & 롤프 스노에렌 (빅터 & 롤프), 요지 야마모토 (요지 야마모토), 레이 카와쿠보 (폼데가르송)	

조형성 분류	특징				디자이너(브랜드)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의 일체화: 환경적 요소의 순환성	▷ 기하학을 통한 환경 요소의 순환이 만들어낸 유희성 ▷ 반복된 공간의 일체화가 도출한 유희적 리듬				레이 카와쿠보 (폼테가르송), 아이리스 반 헤르펜 (아이리스 반 헤르펜), 준야 와타나베 (준야 와타나베), 카린 로데브예 (로데브예)
	멜르니코프 작품 사례	여성복 컬렉션 사례			
	 <p>Figure 57. 『The Cylindrical House-Studio of 1927』. From Fosso and Meriggi. (2000). p. 93.</p>	 <p>Figure 58. 폼테가르송 2008 S/S. From SPRING/SUMMER 2008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2007). http://www.vogue.co.uk</p>	 <p>Figure 59. 아이리스 반 헤르펜 2015 S/S. From SPRING/SUMMER 2015 READY-TO-WEAR Iris Van Herpen. (2014). http://www.vogue.co.uk</p>	 <p>Figure 60. 준야 와타나베 2015 A/W. From AUTUMN/WINTER 2015 READY-TO-WEAR Junya Watanabe. (2015). http://www.vogue.co.uk</p>	

선명한 윤곽을 만든다. 또한 반복되는 새로운 도형은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에서 리듬과 유희성을 도출한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여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 있었다. 본고는 현대 패션의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이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가 멜르니코프 작품의 도면과 입면의 구성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예술적 조형성의 개념 정립을 위해 멜르니코프 작품을 도면과 입면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멜르니코프는 개인의 직관으로 만들어낸 실험적 형태를 당대의 실현 가능한 기능성으로 구현해냈다. 이를 통해 멜르니코프는 다른 구성주의 작가들과 차별화된 혁신적 형태성을 구축하며 예

술적 조형성의 선구자가 되었다.

멜르니코프의 작품들은 도형 모듈을 기초로 오브제의 재조합을 통해 입면의 시각적 형태를 도출하고 있었으며 건물, 창문, 계단, 의자, 파티션, 기둥의 일차원적 오브제 요소들은 반복, 상승, 이동, 상호 관입의 조합을 통해 6가지의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을 구축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멜르니코프의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하학적 형태성’으로 멜르니코프는 원, 삼각형, 사각형의 기본 도형의 형태에 충실한 외적 실루엣을 구축하였다. 둘째는 ‘리듬’으로 멜르니코프는 기하학 매스와 도형들을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배열하며 시각적 율동감을 표현하였다. 셋째는 ‘다시점’으로 건축가는 이질적 매스들의 해체와 상호 관입을 통해 외적 형태의 다시점적 관점을 형성하였다. 넷째는 ‘가변적 기능성’으로 멜르니코프는 내적 기하학 요소의 이동이 만들어낸 공간 변화를 통해 내적 공간의 가변적 기능성

과 내적 역동성을 도출하였다. 다섯째는 ‘역동성’으로 그는 사진과 나선의 외적 형태로 시각적 역동성을 만들어냈다. 마지막 특징은 ‘자연의 순환성’이었다. 벨르니코프는 기하학을 통해 자연 요소를 내부로 순환하도록 한 구성을 건축물에 적용하였고 이는 내적 형태의 유희성을 도출시켰다.

벨르니코프 예술적 조형성의 특성을 근거로 추출된 21세기 이후 여성복 컬렉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적 형태의 확장이 가져온 ‘기하학적 형태미’이었으며, 디자이너들은 도형의 기본 형태를 중심으로 옷을 선명한 윤곽의 입체 도형으로 표현하며 2D와 3D의 경계가 모호한 실루엣을 구축하였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모리가나이었다. 둘째는 기하학과 매스의 놀이가 만들어낸 ‘리듬의 유희성’이었고, 규정된 혹은 서로 다른 도형과 매스의 규칙적 반복으로 새로운 조형적 형태가 도출되어 시각적 리듬과 유희성이 형성되었다. 대표 디자이너는 와타나베이었다. 셋째는 도형의 중첩과 상호 관입이 구축한 ‘의외적 실루엣의 다시점적 관점’이었고, 패션 디자이너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매스를 관입하거나 도형의 중첩을 통해 의외적 실루엣을 만들어내었다. 또한 이러한 의외적 실루엣은 시각적 위치에 따라 또 다른 실루엣을 구축하며 다시점적 관점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디쿤은 대표적으로 다시점적 관점을 구축한 디자이너이었다. 넷째는 기하학적 모듈의 움직임이 형성한 ‘가변적 기능성’이었고, 형태에서 해체된 기하학 모듈의 이동은 새로운 공간과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살라얀은 대표적인 가변적 기능성을 구축해낸 디자이너였다. 다섯째는 입체적 형태의 시선 이동이 만들어낸 역동성의 ‘상승적 이미지’이었다. 디자이너들은 사진과 나선의 입체적 형태를 이용해 앞서 도출된 도형의 반복, 중첩, 관입이 구축한 역동적 실루엣과는 차별화 된 시선의 이동을 통한 시각적 역동성으로 표현하였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아마모토이었다. 마지막 특징은 환경적 요소

의 순환을 통한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의 일체화’이었고, 기하학을 통한 환경 요소가 형태의 외부와 내부를 순환하며 내적 공간의 우연적 유희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속된 기하학의 모듈은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의 일체화를 만들어냈다. 대표 디자이너는 헤르펜이었다.

건축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의 특성인 ‘1차원적 도형’, ‘상호 관입’, ‘형태 중첩’, ‘패턴 반복’, ‘모듈의 움직임’, ‘외적 요소의 순환’, 그리고 ‘상승적 이미지’는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 현대 패션에는 ‘기하학적 형태미’, ‘리듬의 유희성’, ‘의외적 실루엣의 다시점적 관점’, ‘가변적 기능성’, ‘상승적 이미지’,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의 일체화’라는 예술적 조형성의 특징이 추출되었다. 결론적으로 21세기 패션 디자이너들은 기능주의가 만들어낸 기하학적 형태를 자신만의 디자인 감성으로 재해석하고 기술과 예술의 조우를 탐구하며 이전의 기능적 디자인에서 진보된 예술적 조형성을 구축하였다.

Reference

- AUTUMN/WINTER 2004 READY-TO-WEAR Junya Watanabe. (2004, March 3).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04/ready-to-wear/junya-watanabe>
- AUTUMN/WINTER 2006 READY-TO-WEAR Boudicca. (2006, February 10).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06/ready-to-wear/boudicca>
- AUTUMN/WINTER 2008 READY-TO-WEAR Giles. (2008, February 13).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0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08/ready-to-wear/giles>
- AUTUMN/WINTER 2009 READY-TO-WEAR Emilio De La Morena. (2009, February 22).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09/ready-to-wear/emilio-de-la-morena>

- AUTUMN/WINTER 2011 READY-TO-WEAR Yohji Yamamoto. (2011, March 6).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1/ready-to-wear/yohji-yamamoto>
- AUTUMN/WINTER 2013 READY-TO-WEAR Pam Hogg. (2013, February 19).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3/ready-to-wear/pam-hogg>
- AUTUMN/WINTER 2015 READY-TO-WEAR Anrealage. (2015, March 3).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5/ready-to-wear/anrealage>
- AUTUMN/WINTER 2015 READY-TO-WEAR Jacquemus. (2015, March 3).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5/ready-to-wear/jacquemus>
- AUTUMN/WINTER 2015 READY-TO-WEAR Junya Watanabe. (2015, March 7).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5/ready-to-wear/junya-watanabe>
- AUTUMN/WINTER 2015 READY-TO-WEAR Rodebjer. (2015, February 13).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5/ready-to-wear/rodebjer>
- Charlotte, S. (2000).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1900-1999*. Cologne: Koeneemann.
- Collins, P. (2001). *근대건축의 이념과 변화*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1750-1950] (Lee, J. S., Trans.). Seoul: Taerim.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Cooke, C. (1990). *Architectural Drawings of the Russian Avant-Garde*.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 Dempsey, A. (2002). *Art in the modern era*. New York: Harry N. Abrams.
- Fosso, M., & Meriggi, M. (2000). *Konstantin S. Mel'nikov and the construction of Moscow*. New York: Skira.
- Gray, C., & Burleigh-Motley, M. (1986). *The Russian experiment in art 1863-1922*. London: Thames & Hudson Ltd.
- Guillaume, V. (1998). *Courrèges* (Dale, L., Trans.). London: Thames and Hudson.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Jin, J. K. (2011).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모더니즘 편* [Jin Jungkwon's the story of art about modernism]. Seoul: Humanist.
- Joe, K. H., & Lee, H. S. (2004). *패션미학* [Aesthetics of fashion]. Seoul: Soohaksa.
- Khan-Magomedov, S. O. (1987). *Pioneers of Soviet Architecture: The search for new solutions in the 1920s and 1930s*. London: Tames and Hudson Ltd.
- Kim, M. J. (2011). *A study of fashion design by constructivism: Focused on abstract el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Kim, S. I. (2012). *A study on structural design in modern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Lee, I. Y., & Kim, S. Y. (2015). The fashion designs concept of 3 dimensional shapes and the designs formativeness: Focusing on 『View』, 『View 2』 after the year 201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5(3), 21-33. doi:10.18652/2015.15.3.2
- Lee, J. H. (2003).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dynamic form of Konstantin S. Mel'nikov*.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Lee, J. J., & Park, S. M. (2011). *패션, 문화를 말하다* [Fashion and culture]. Seoul: Yekyong.
- Park, E. Y., & Joo, B. L. (2014). A study on fashion design that applies the geometry of Alexander Calder found in his late stab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4(4), 19-34.
- plasticity. (n.d.). *NAVER Encyclopedia*. Retrieved January 3, 2016,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5020&cid=50335&categoryId=50335>
- Quinn, B. (2004). *The Fashion of Architecture*. Oxford: Berg Publishers.
- SPRING/SUMMER 2004 READY-TO-WEAR Yohji Yamamoto. (2003, October 13).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04/ready-to-wear/yohji-yamamoto>
- SPRING/SUMMER 2007 READY-TO-WEAR Hussein Chalayan. (2006, October 4).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07/ready-to-wear/hussein-chalayan>
- SPRING/SUMMER 2008 READY-TO-WEAR Comme Des Garçons. (2007, October 2).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08/ready-to-wear/comme-des-garcons>
- SPRING/SUMMER 2009 READY-TO-WEAR Comme Des Garçons. (2008, September 30).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09/ready-to-wear/comme-des-garcons>
- SPRING/SUMMER 2009 READY-TO-WEAR Gareth Pugh. (2008, September 27).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09/ready-to-wear/gareth-pugh>
- SPRING/SUMMER 2009 READY-TO-WEAR Gianfranco Ferré. (2008, September 21).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09/ready-to-wear/gianfranco-ferre>
- SPRING/SUMMER 2009 READY-TO-WEAR Manish Arora. (2008, September 19).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09/ready-to-wear/manish-arora>
- SPRING/SUMMER 2009 READY-TO-WEAR Victor & Rolf. (2008, September 30).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

- /spring-summer-2009/ready-to-wear/viktor-and-rolf
SPRING/SUMMER 2012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2011, October 1).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2/ready-to-wear/comme-des-garcons>
SPRING/SUMMER 2014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2013, September 28).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4/ready-to-wear/comme-des-garcons>
SPRING/SUMMER 2014 READY-TO-WEAR Ivana Pilja. (2013, September 15).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4/ready-to-wear/ivana-pilja>
SPRING/SUMMER 2015 READY-TO-WEAR Junya Watanabe. (2014, September 27).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5/ready-to-wear/junya-watanabe>
SPRING/SUMMER 2015 READY-TO-WEAR Iris Van Herpen. (2014, September 30). *VOGUE BRITISH*. Retrieved September 22, 2015,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5/ready-to-wear/iris-van-herpen>
Starr, S. F. (1978). Melnikov: Solo architect in a mass societ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38(2), 183-184.
Yang, N. J., & Roh, Y. S. (2016).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applying the formativeness of Kuma Kengo's 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6(3), 67-82. doi:10.18652/2016.16.3.5
Yim, S. J. (2008).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1890-1940* [Architecture and art 1890-1940]. Seoul: Humanist.
Yoon, J. H. (1995). *구성주의 건축* [Architecture of constructivism]. Seoul: Sejin-book.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rtistic Formativeness in Modern Fashion

-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Konstantin Mel'nikov's Works -

Kim, Yi Seul · Park, Shin Mi⁺

Master's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artistic formativeness in women's collections after the 2000s. The geometrical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vism' appeared in modern fashion, and the works of Konstantin Mel'nikov, who is a Russian architect in the 20th century, have been influential in the expression of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fashion until today. Therefore, this research defines artistic formativeness through the geometrical elements found in the 21st century fashion, which trace back to Konstantin Mel'nikov's works. The questions this research explores are as follow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and formativeness and how can we define artistic formativeness in modern fashion? What makes Konstantin Mel'nikov a pioneer in artistic formativenes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artistic formativeness in Konstantin Mel'nikov's work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artistic formativeness in fashion after the 2000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paper analyzes Ready-to-wear collections in Paris, London, Milano, New York from 2000 S/S and 2015 A/W. This study utiliz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by providing a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and analyzing the contents. To sum up, while the geometrical formativeness was expressed in the form of one-dimensional shapes and patterns in the 20th century fashion, the artistic formativeness, after the 2000s, emerged while adapting three-dimensional shapes through reiteration, rearrangement, inter coursing.

Key words : geometric formativeness, artistic formativeness, Konstantin Mel'nikov, women's collection

